

2023학년도 제2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평의원회 회의 결과

일시	2023. 10. 30.(월) 14:00 ~ 15:07	
장소	대학본부 본관 612호 중회의실	
참석 현황	재적위원	16명
	참석위원	9명, 김선아(교무처장), 이석호(기획처장), 이공희(자연대 교수대표), 권수열(교수회 대표), 노재웅(직장협의회 부회장), 윤형식(국공립대학노조 부지부장), 임대호(조교협의회장), 이효재(전국총학생회 교무부총학생회장), 고정재(동문회 상임부회장)
	불참위원	7명, 강상규(인문대 교수대표), 박강우(사회대 교수대표), 이봉민(교육대 교수대표), 설진아(교수회 대표), 최형숙(직장협의회 총무부장), 이근우(국공립대학노조 지부장), 서평일(전국총학생회장)
	기타참석	정성춘(간사), 정용학(프라임지원팀장), 백승희(교무관리팀장), 임현정(수강관리팀장), 김은영(학적관리팀장), 박시연(예산팀장), 정서진(교무관리주무관), 김형선(수강관리주무관)
심의안건	1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 학·처장회의에 프라임칼리지 학사학위과정에 대한 심의 권한 추가
	2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 학부 및 프라임칼리지 학사학위과정에 다전공 신설 및 운영 근거 마련
	3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 계절수업의 재이수 요건 폐지
	4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 특별휴학 중복 조항 수정·삭제 및 일반휴학의 사문화된 조항 삭제
	5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 추가경정예산 및 결산의 절차 간소화를 위한 교무위원회 심의사항 수정
안건 심의 결과	(심의1)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 학·처장회의에 프라임칼리지 학사학위과정에 대한 심의 권한 추가 ☞ 원안 가결	
	(심의2)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 학부 및 프라임칼리지 학사학위과정에 다전공 신설 및 운영 근거 마련 ☞ 원안 가결	

(심의3)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 계절수업의 재이수 요건 폐지

☞ 원안 가결

(심의4)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 특별휴학 중복 조항 수정·삭제 및 일반휴학의 사문화된 조항 삭제

☞ 원안 가결

(심의5)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 추가경정예산 및 결산의 절차 간소화를 위한 교무위원회 심의사항 수정

☞ 원안 가결

2023학년도 제2회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 회의 발언요지

< 1. 성원 보고 >

- 의 장 권수열 오랜만에 뵙습니다. 2023학년도 제2회 대학평의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하신 교무과장님께 성원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 간 사 정성춘 평의원 16명 중 9명 재직 평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2. 개회 선언 >

- 의 장 권수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학년도 제2회 대학평의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3. 지난 회 [2023학년도 제1회 대학평의원회 결과 보고] >

- 의 장 권수열 전차 회의 결과 보고 부탁드립니다.
- 간 사 정성춘 2023학년도 제1회 대학평의원회 회의 결과를 보고함
- 의 장 권수열 전차 회의 결과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시면 의견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 평 의 원 일동 예.
- 의 장 권수열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본안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4. 안건 상정 및 심의 >

안건 1.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중 학·처장회의에 프라임 칼리지 학사학위과정에 대한 심의 권한 추가에 관한 사항

- 의 장 권수열 우선 심의 안건 1호입니다. 프라임칼리지에 관련된 안건인데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프라임지원팀장께서 안건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프라임지원팀장 제1호 안건을 보고함
- 의 장 권수열 프라임지원팀장님으로부터 프라임칼리지와 관련된 학칙 일부개정학칙(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들으신 내용에 대해 평의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장으로서 보강설명을 드리면 우리 학교에 단과대학

시스템이 두 종류가 있지요. 일반 단과대학이 있고 프라임칼리지라고 하는 또 다른 단과대학을 운영해 왔는데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학사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결정을 프라임칼리지는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또 시행하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학칙을 개정해서 의사결정 과정을 대학과 같이 추진하도록, 어떻게 보면 학교 안으로 들어오는 내용들이 이번에 개정학칙(안)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프라임칼리지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던 내용들을 학교에서 결정하도록 되다 보니까 관련된 내용들을 수정할 수밖에 없어서 학칙개정(안)을 낸 것 같습니다. 의견들 주십시오.

- 노재웅 평의원** 학부와 프라임칼리지 학사학위과정의 의사결정절차 일원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학·처장회의에 프라임칼리지 학장님도 들어가시나요?
- 프라임지원팀장** 들어가십니다.
- 의 장 권수열** 프라임칼리지의 여러 가지 결정 과정들을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들여다보고 단과대학 운영과 맞춰서 의사결정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 김선아 평의원** 이것은 형식적인 부분인데요. 124조 6항에 호가 여러 개가 달려 있는데 삭제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호 번호가 다시 정리가 되어야 하는 건가요?
- 프라임지원팀장** 6항에서 번호는 변동이 없습니다. '삭제'라는 표현이 남아 있게 됩니다.
- 의 장 권수열** 학교 차원의 의사결정과정으로 들어오게 되면 프라임칼리지가 지금보다도 운영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신경을 더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은데요.
- 프라임지원팀장** 맞습니다.
- 의 장 권수열** 반면에 프라임칼리지에 대한 인식들이나 프라임칼리지에서 운영하는 것들을 학교 차원에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서로 의사결정과정도 다르다 보니까 모르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도 좀 있었는데 단과대학, 학부하고 통합되어 같이 들여다볼 수 있어서 학교 차원에서는 프라임칼리지의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보게 되네요.
- 노재웅 평의원** 제141조 학위수여의 취소가 프라임칼리지 운영위원회에서 학·처장회의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학·처장회의 학칙에 어디 해당되는 데가 있나요?
- 프라임지원팀장** 단과대학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전반적인 내용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 김선아 평의원** 제32조6항의1호가 그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 프라임지원팀장** 1호 단과대학 운영에 관한 사항에 프라임칼리지 학사학위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에 포함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의 장 권수열** 학생회나 동문회에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으신가요?
- 이호재 평의원** 없습니다.
- 고정재 평의원** 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만, 프라임칼리지가 운영위원회라는 별도의 기구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다가 본교의 단과대학과 같이 예산이라든가 학사관리가 통합된다면 프라임칼리지 자체적으로는 독립성이 훼손될 염려는 없는 건가요?

- 프라임지원팀장** 운영은 독립적으로 하는데요. 의사 결정을 좀 더 넓은 학교 차원에서 결정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 고정재 평의원** 의사결정을 학교에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프라임칼리지에서는 그전에 운영하던 것보다도 통제를 더 심하게 받으실 텐데요.
- 이석호 평의원** 맞는 말씀이시기는 한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통제보다도 본부 차원에서의 관심이 더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너무 방치하다 보니까 프라임칼리지가 뭔가를 해야 하는데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조금 더 관심을 쏟아서 학내 구성원들이 프라임칼리지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프라임칼리지가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고 궤도에 오르면 그때는 말씀하신 대로 독립적으로 의사 결정을 하고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학교 측의 관여와 관심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 고정재 평의원** 지원 강화라고 보면 되나요?
- 이석호 평의원** 그런 측면인 거지요. 관심을 많이 갖고, 사실 관련되어 있는 소수의 분들만 관여하고 관심을 가졌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보직자 전체가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면 프라임칼리지가 특정 분야의 일이 아니라 우리 학교 전체의 일로 인식을 하기 위한 목적이 되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잘 되면 그때는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 의 장 권수열** 프라임칼리지의 위상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나 질문사항이 없으신 것 같아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을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동의해주시겠습니까?
- 평의원 일동** 예.
- 의 장 권수열** 그럼 찬성해 주신 것으로 해서 심의 안건 1호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하겠습니다.

안건 2.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중 학부 및 프라임칼리지 학사학위과정에 다전공 신설 및 운영 근거 마련에 관한 사항

- 의 장 권수열** 두 번째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교무과의 교무관리팀장께서 안건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무관리팀장** 제2호 안건을 보고함
- 의 장 권수열** 팀장님으로부터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복수전공, 연계전공으로

운영하던 것에 융합전공, 마이크로전공까지 집어넣어서 다전공으로 운영하는 학칙 개정을 추진하는 안건인 것 같습니다. 실무적으로 구체적인 것들은 교무처장님께서 보충 설명을 해 주셔야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김선아 평의원** 다전공 관련된 부분은 사실 우리 학교가 조금 천천히 시작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육부에서도 그렇고 일반대학에서 다양한 전공을 만들고자 하는 욕구는 있으나 실제로 만드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보니 다전공제라는 것을 도입해 보자, 그래서 유연하게 전공을 만들어 보자는 의미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우리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학생이 교과목을 다양하게 설계해서 듣고 있지만 전공이라는 것이 명확하지요.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도 이번에 이렇게 다전공제를 도입함으로써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학과 외에도 다른 전공들, 과목 수는 6과목 정도입니다. 6과목 정도로 가볍게, 어떻게 보면 유연하게 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전공들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그런 과목을 들어보고 또 나에게 맞는 전공들을 좀 더 확대해 보는 계기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학교 입장에서도 우리 학교가 원격교육이기 때문에 유연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워낙 많다 보니까 유연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다전공제로 한번 해 보면 학생들의 수요가 있는 분야가 어떤 것인지도 저희가 좀 더 실질적으로 파악해 볼 수도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연하게, 새롭게 도전해 보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의 장 권수열** 보충설명도 들으셨고요.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희 평의원** 시행 시점은 언제예요? 여기서 통과되면 바로 시작되는 건가요?

○**김선아 평의원** 통과가 되면 내년에 저희가 수요조사 과정을 거칠 것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운영되는 것은 내년 2학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전공도 유형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저희가 먼저 용이하게 시작해 볼 수 있는 것부터 해 보려고 합니다. 단계적으로 내년 2학기, 그다음에 후년 1학기 이런 단계를 거쳐서 여러 전공들을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노재웅 평의원** 그러면 시행일을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내년도 언제부터 해야 한다고 시행일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교무관리팀장** 수요조사는 곧바로 시행할 것이기 때문에 굳이 시행 시점을 못 박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부칙에 별도로 시행 시점을 넣지 않았고요. 운영 근거가 있어야 저희가 학생들한테 일단 수강 신청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학과 대상으로 해서 학과 신설에 필요한 운영 근거가 되기 때문에 시행 시점을 못 박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 노재웅 평의원** 일반적으로 학과 신설 같은 것을 할 경우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것을 학칙에 넣어놓고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지 이것을 시행하고 그 이후로 또 만드는 거잖아요.
- 김선아 평의원** 학과 신설하고는 다르게 봐야 하는 것이 아예 학과, 그리고 정원이 얼마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전공을 학생들을 위해서 일단 개설하면 그 전공 중에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유연하게 해보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학과라면 학생들의 학사관리나 이런 것을 하는 주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런 부분도 유연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학과 신설 없이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번에 학칙이 통과되면 바로 수요조사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준비하고 내년 상반기에 학생들에게 바로 홍보를 합니다. 운영한다는 것은 그러면 내년 2학기부터 바로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공을 취득할 수 있도록 시작한다는 의미지요. 그러니까 준비는 바로 시작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이 제도가 바로 시행이 되어야 저희가 수요조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노재웅 평의원** 우려되는 것은 지금 학칙을 보면 복수전공, 연계전공 2개밖에 없잖아요. 기존 학생들은 그렇게 알고 있을 텐데, 바로 학칙이 이렇게 공포되면 기존의 학생들은 이렇게 바뀌는 것을 인지를 못 하고 있다가 혼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면 어떡냐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고요.
- 교무관리팀장** 학생들한테는 새로운 전공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학과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직접적인 마이크로전공 명칭이 나오면 학생 대상으로 홍보를 열심히 해서 학생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런 제도하에서 이런 전공이 새로 신설되었으니 수강 신청은 언제이고 언제부터 시작된다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노재웅 평의원** 각 전공마다 밑으로 규정이 따로 또 있나요?
- 교무관리팀장** 이것은 학칙이 있고요. 다전공 운영규정으로 해서 지금 규정을 제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 노재웅 평의원** 수료증명서, 학위증명서 같은 것은 마이크로전공은 서식에 없는 것 같은데 안 넣는 이유가 있나요?
- 교무관리팀장** 마이크로전공은 학사학위가 수여되지 않습니다. 졸업증서는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것에 한하여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로전공은 학사학위가 나가지 않는 전공이기 때문에 별지에서는 빠졌고요. 단지 성적증명서에는 다 명시가 될 것이고, 이수했다는 것을 학생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증명서에는 남을 겁니다.

○**의 장 권수열** 나름 의도는 재학생들이 들어와서 처음에 선택한 전공 외에 다른 전공들도 들어볼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학과의 과목들 쫓아가기도 벅찬 학생들도 많아서 이렇게 여러 전공들을 오픈했을 때 얼마나 학생들이 신청해서 들을지 운영이 제대로 될지 이런 것들이 걱정은 됩니다.

○**이호재 평의원** 재학생 입장에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것의 의도가 뭐냐 하면 본래 입학한 전공 외에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율전공제를 도입하겠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개정이 되면 학생회 쪽으로 그런 문의가 많이 들어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자기가 입학한 전공 외에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별도의 전공을 따로 만드시겠다는 의도지요?

○**김선아 평의원** 학과는 졸업학점을 130학점 이상 취득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가 도입하는 다전공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율전공까지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6과목 정도를 수강해서 이것을 졸업증명서에, 예를 들어서 경영학과 학생인데 본인이 우리 학교에 만들어져 있는 외식경영전공을 취득했다는 것을 졸업증명서에 명기해 주는 거지요.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 좋은 점은 우리가 보통 경영학과라고 하면 상당히 여러 분야를 커버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이 중에서 구체적인 전공을 이수했다는 것이 성적증명서에 명기가 됨으로써 전문성을 조금 더 부여해 줄 수 있는 정도라고 봅니다. 보통 우리가 자유전공 학부를 만든다든가 할 때는 졸업학점을 130점을 이수하는 정도의 복수전공 정도는 해 줘야 우리가 그런 전공을 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지요. 어찌면 다전공에 있는 여섯 과목 정도 듣는 것은 지금 의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른 전공을 경험해 보고 내가 이수한 그 과목들의 전공을 성적증명서에 명시를 해 줘서 전문성을 부가해 주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새로운 분야를 공부해 보고 싶다고 하면 아예 다른 분야로 공부를 새로 시작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재 평의원** 김선아 평의원님 말씀으로는 전공 이동까지도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김선아 평의원** 그것은 개인 선택으로 보는 거지요.

○**이호재 평의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저희가 입학해서 다른 대학의 과목들에 관심을 보이는 학우들이 많이 있어요. 다른 학과나 우리 학교에 없는 학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분이 많아서 수요조사를 하시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학생들이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입학하는 신입생들이 전에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았는데 요새는 20대, 30대 젊은 분들도 많이 입학할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 활성화되면 기존 저희 학교의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을 보면 복수전공이나 연계전공에서 거의 탈피를 못 하는, 그냥 과목만 조금 더 늘어나는 정도의 수준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자율전공제까지 도입해서 조금 더 확대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선아 평의원** 좋은 의견이시고요. 교무 입장에서 그 부분도 우리 학교가 몇 년 전부터 계속 검토는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느끼는 것은 이미 학생들이 본인이 원하면 자유롭게 여러 분야의 과목들을 이수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학교의 모습입니다. 다른 학교와는 다르게 이미 그렇게 듣고는 있는데 이것이 졸업장에 명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전공은 그런 부분을 졸업장에 명기해 준다는 취지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작 자체는, 제가 아까 단계적으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기존에 있는 학과의 과목들을 잘 융합해서 전공을 만들어 나갈 것이고 다음 단계는 지금 우리가 없는 것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융합학문 분야입니다. 그래서 융합학문 분야를 어떻게 이 다전공에 녹일 것인가, 그러면 새로운 교과목이 필요하게 되겠지요. 그런 부분은 내년에 추진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분야의 교수님들이 서로 협의해서 조금 더 지금 트렌드에 맞는 융합전공들을 만드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6과목 이외에 여기에 녹아 있는 내용이 뭐가 있냐면 지금 우리가 복수전공이 있지요. 그리고 연계전공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조금 더 현실화해서 학생이 우리 학교에서 복수전공을 하는데 융합학문을 해 보고 싶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앞으로 단계적으로 이런 부분까지도 확대를 해 나가려고는 합니다. 그런데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막 만들 수가 없는 것이 다른 학교에서 이것을 많이 해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의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생각보다 학생들 신청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 전공을 공부하기에도 급급하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도전해 본다는 것이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일단 시작을 해 보고요.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를 봐 가면서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대호 평의원** 다전공을 하게 되면 상담은 어느 쪽에서 실제적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김선아 평의원**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고요. 다전공은 일단 교과목 중심으로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물리적으로 현재 있는 교과목들을 묶어서 전공으로 묶는 거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은 지금처럼 그 교과목을 공부를 하면 되고 궁금한 사항은 그쪽으로 연락을 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확대되어 가다 보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것에 대한 운영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금은 교무관리팀에서 주도적으로 제도적인 것부터 만들어

나가고 있고 향후에는 교육혁신센터가 우리 학교에도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다전공은 혁신센터에서 유연하게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연하다는 것이 사실은 인기가 없으면 전공을 폐할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우리 학교가 좀 어려운데 다전공 같은 경우에는 개·폐를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가급적 교육혁신센터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임대호 평의원 그리고 이것은 학칙 개정이 아니라 세부적인 규정에 관련된 얘기일 것 같은데요. 복수전공이 원래 성적 제한이 있었다가 지금 사라지게 되는 것으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지금 학생들이 타 학과의 경우 전공 여부 관계없이 듣고 있기는 한데 성적 제한까지 풀면 오히려 학생들이 정말 학과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도 안 듣고 그냥 단지 복수전공, 아니면 다전공 이런 표기를 원한다고 무작위로 신청을 하게되고, 어떻게 보면 학생이 그 과목을 들을 수 있는 기초가 안 되어 있는데 신청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너무 성적 제한 등을 다 풀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것을 뭔가 보완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계획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무관리팀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드리면, 학생 입장에서 우리 대학의 복수전공이 사실은 타 대학에 비해서 성적이 너무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 성적이 안 되면 아예 복수전공이 안 되는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또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의도에서 성적 제한을 없앴는데요.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그런 말씀을 여러 학과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민하는 것이 일부 학과에서는 복수전공을 제한하는 학과가 있습니다. 그런 학과에서는 기본적인 지식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예 제한을 하고 있고요. 다른 대학의 내용을 벤치마킹해 봤을 때는 정원을 소수로 모집해서 운영하는 학교도 많았거든요. 그런 것을 다방면으로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기의 주전공에서도 기본적인 지식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전공을 확대하는 의미에서 복수전공을 신청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그와는 별개로 자기가 열심히 했는데 그 성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학생까지 다 제한할 수는 없어서 성적 제한을 풀은것인데, 추후에 의견수렴을 받아서 복수전공의 정원을 학과별로 두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향후 학과의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 장 권수열 또 의견이나 질문사항이 없으신 거지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칙 일부개정 학칙(안)을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동의해주시겠습니까?

○**평의원 일동** 예.

○**의 장 권수열** 그럼 찬성해 주신 것으로 해서 심의 안건 2호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안건 3.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중 계절수업의 재이수 요건 폐지에 관한 사항

○**의 장 권수열** 세 번째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학사운영과의 수강관리팀장께서 안건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강관리팀장** 제3호 안건을 보고함

○**의 장 권수열** 감사합니다. 그동안 재이수 요건을 두고 있었는데 성적을 완전히 다 없애는 쪽으로 학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 같습니다. 의견을 주시고요.

○**김선아 평의원**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칙이다 보니까 우리가 학칙에서는 성적에 대한 기준을 두지 않는 내용으로 바꾸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재이수라고 하는 것은 성적을 더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적 기준을 두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두 규정으로 낮추는 겁니다. 단, 계절학기는 성적 제한을 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절학기는 제한된 과목이 열리고 있지요. 열리고 있는 그 과목들은 내가 성적이 A⁰ 정도를 받았어도 계절로는 한 번 더 듣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학생이 한 번 더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이것은 우리 대학이 평생교육대학으로서의 목적에도 부합된다고 보는 겁니다. 단, 정규학기에는 성적을 그대로 제한을 둡니다. 그래서 정규학기에 재수강을 하고자 하는 경우, 많은 과목들이 정규학기에는 재수강이라는 것을 할 수 있잖아요. 재이수를 할 수 있게끔 두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정규학과 계절을 구분해서 운영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질문 중에 그렇게 할 것이면 정규학기에도 다 풀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내용이 분명히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이수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원칙은 성적향상에 있다고 보고 정규학기에는 성적 제한을 그대로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호재 평의원** 정규학과 계절학기의 제한에 대한 부분은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저희가 계절학기 수업을 듣다 보면 계절학기에 수업으로 나오는 과목들이 되게 한정적이거든요. 심한 경우에는 1학년 때 저희가 만약에 F를 받거나 해서 재수강을 못 하게 되면 4학년 졸업할 때까지 계절학기에 안 나오는 과목들도 있어요. 계절학기에 재수강을 할 수 있는 과목을 늘려주실 생각은 없는지 그 부분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김선아 평의원** 저희가 교과목 확대 부분에 대한 요구가 많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추이를 보면 현재 있는 교과목에도 실제 신청하는 학생 수가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로 보는 것은 우리가 형성평가가 도입되면서 학생들의 성적이 어느 정도 향상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계절수업의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부담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 것은 학생들이 예전만큼 계절수업을 많이 신청하지는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평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상황이 있지요. 반드시 들어야 되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계절에 열어주는 것이 너무 간절할 텐데 그렇게 맞춰서 가기에는 실제 수강하는 학생 수가 50명 미만이다, 이런 경우에는 개설해서 운영하는 것이 학교입장에서 부담이 크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런 경우에는 학생들이 정규학기에 어떻게든, 만약에 1학년 때 그런 일이 있었다, 2학년 때다, 그러면 정규학기에 재수강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절을 그만큼 더 완전히 확대해서 운영하려면 계절수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의 비용 부담을 좀 더 높여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른 학교에서는 교과목당 비용으로 해서 지금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서는 과목을 많이 여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호재 평의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절학기를 듣고 싶은데 안 열리는 과목이 많이 있잖아요. 학생들의 참여도가 떨어지는 것이 자기가 진짜 필요한 과목이 있는데 안 열리게 되면 안 듣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계절학기 수업을 등록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인기 있는 과목들만 골라서 선택적으로 열어주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선아 평의원** 저희가 계절을 여는 기준은 성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생 입장에서 성적 향상이 목적이기 때문에 취득된 성적 수준이 낮은 학생이 많은 과목을 열어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현재 대부분 학과에서도 학생 수 기준으로 검토를 해서 개설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학생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하려면 모든 과목을 열어야 되겠지요. 그렇게 운영하기는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학생들이 정규학기에 재수강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 장 권수열** 저희 학과에서도 말씀대로 어떤 과목 좀 열어달라고 요구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것을 열 수 있는 근거가 참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대로 성적이 좋은 과목, 평균적으로 좋은 과목인데 그 학생은 아마 농친 모양이고 그러다 보니까 기준을 잡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F학점이라든지 D학점이 제일 많은 과목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숫자 늘리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실까요?

- 임대호 평의원** 만약에 어떤 학생이 과목을 B를 받았는데 B는 정규학기 때 재이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절학기를 들으면 성적향상이 돼서 A+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학생은 이것을 F나 D를 받았는데 인원이 적어서 이것은 계절에 안 열리는 과목일 경우에는 이 학생은 이렇게 되면 나 B인데 삭제도 못 하고 계절에도 안 열리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는 민원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 김선아 평의원** B 정도면 아주 훌륭한 학점이라고 안내를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런 요구가 많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요. 학생들이 이런 제도를 활용하여 성적을 향상시키고 싶어하고 그렇게 해서 다 A를 만들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한 명 한 명의 욕구를 다 반영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B 성적 정도의 학생이라면 사실은 우수한 성적이라고 상담을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의 장 권수열** 또 의견이나 질문사항이 없으신 거지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칙 일부개정 학칙(안)을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동의해주시겠습니까?
- 평의원 일동** 예.
- 의 장 권수열** 그럼 찬성해 주신 것으로 해서 심의 안건 3호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안건 4.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중 특별휴학 중복 조항 수정 · 삭제 및 일반휴학의 사문화된 조항 삭제에 관한 사항

- 의 장 권수열** 네 번째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입학학적과의 학적관리팀장께서 안건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적관리팀장** 제4호 안건을 보고함
- 의 장 권수열** 학칙에 간단하게 큰 뜻을 담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것은 규정에 담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특별휴학 관련해서는 학칙에도 있고 규정에도 있는 것 같아서 학칙을 단순화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설명을 들으셨는데 의견 있으시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재웅 평의원** 주요경과를 보면 교무위원회 심의 때 ‘총장이 따로 정한다’를 ‘따로 정한다’로 수정했잖아요. ‘총장이’를 뺀 이유가 있나요?
- 학적관리팀장** 보통 저희 학칙을 보시면 대부분 규정, 세부지침, 세칙을 운영할 경우에는 보통 ‘총장이 따로 정한다’ 라고 일괄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심의를 거치다 보니까 세칙이나 지침을 운영할 때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가 맞고요. 규정으로만 운영될 때에는 이렇게 ‘따로 정한다’ 라고 하는 게 문구가 맞다고 심의 때 말씀을 하셔서 수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 노재웅 평의원** 그게 행정지원과 검토를 한 건가요?
- 학적관리팀장** 예. 규정 심의도 거쳤고요.
- 노재웅 평의원** 규정안을 할 때는 ‘따로 정한다’이고 나머지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 학적관리팀장** 예.
- 김선아 평의원** 오히려 규정심의위원회를 거치면서, 그 위원회는 과장님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주신 의견이었어요. 이렇게 ‘따로 정한다’라는 문장, 그러니까 법률로 정한다, 법률이라는 것이 학칙이나 규정이 되는 거지요. 규정으로 정하는 것은 총장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법률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로 정한다는 의미로 ‘총장’이라는 말을 빼고 ‘따로 정한다’ 이렇게 쓰고, 그 외에 우리가 세칙, 시행규칙을 만들 때는 이것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법률의 위계 이런 것을 좀 더 정리하는 의미로 저희가 수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규정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의견을 주셨고 이것이 행안부나 교육부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타 대학 사례도 몇 개를 봤는데 타 대학에서도 최근에 학칙을 정비한 데서는 이렇게 문장을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대학도 그런 맥락에서 이번 학칙에 올라오는 것은 이렇게 ‘따로 정한다’라는 의미로 문장을 수정하고 그 의미는 법률로써, 규정으로써 따로 정한다는 의미로 저희가 해석을 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 노재웅 평의원** 제가 지금 ‘따로 정한다’로 검색을 했더니 수백 건이 되는데 그것을 다 행정지원과에서 일괄적으로 검토해서 전면 개편이 필요할 것 같아요.
- 의 장 권수열** 이것은 교수회에서도 어느 교수님께서 질의하셔서 논란이 됐던 내용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칙 일부개정 학칙(안)을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동의해주시겠습니까?
- 평의원 일동** 예.
- 의 장 권수열** 그럼 찬성해 주신 것으로 해서 심의 안건 4호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안건 5.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중 추가경정예산 및 결산의 절차 간소화를 위한 교무위원회 심의사항 수정에 관한 사항

- 의 장 권수열** 다섯 번째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재정지원과의 예산팀장께서 안건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산 팀 장** 제5호 안건을 보고함
- 의 장 권수열** 우리 학교의 본예산하고 추경 절차가 4단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줄이자는

의견인데, 일단 추경부터 단계를 줄여서 시급한 사업들을 빨리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의견들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는 있는 다른 대학 현황자료를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산 팀 장 타 대학은 한국체육대학교, 강원대, 서울교대, 서울과기대, 경북대, 전북대, 한경국립대, 부산대 이런 거점대학들 중심으로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 국립대학 회계법에 따라서 원래 본예산 편성 절차는 재정위원회 한 단계만 거처도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산 규모, 검토 대상이 방대하기 때문에 2단계를 하고있는 대학들은 예산편성소위원회, 우리 학교의 예결산위원회 같은 기능이 있는 대학도 있고 행정부서에서 모두 정리를 한 후 재정위원회 심의·의결로 이 한 단계 절차만 거치는 대학도 있습니다.

○노재웅 평의원 제31조 5항 4호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세입·세출예산안(추가경정예산 제외)에 관한 사항’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산에 관한 사항은 심의를 안 하나요?

○예 산 팀 장 맞습니다. 심의가 생략되는 것이 교무위원회 심의가 생략이 되고요. 보고 생략은 정책협의회 보고가 생략되는 겁니다.

○노재웅 평의원 교무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는 아예 없어지는 거고요? 그러면 결산 심의는 어디서 해요?

○예 산 팀 장 결산 심의는 예결산위원회에서 하고 그 다음에 재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 현행 제31조 교무위원회 학칙 규정을 봐도 ‘그 밖에 총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교무위원회에서도 심의도 가능은 합니다.

○노재웅 평의원 그 밖에 총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이면 사실 여기에 없더라도 일단은 올릴 수 있다는 것인데, 결산에 관한 것이 중요하다면 4호를 ‘세입·세출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이렇게 결산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꼭 넣어야 된다면 넣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산 팀 장 결산은 이미 1년 동안 이루어진 재정 운영의 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결산은 심의를 한다고 해서 변동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하면 보고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임대호 평의원 추가경정예산은 두 번 정도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게 8월 전에 이루어지게 되고 이렇게 간소화가 되면 시기적으로 추경을 한 번 정도 더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예 산 팀 장 물리적으로는 예산 변동 사항이 발생해서 추경이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호 평의원 사실 학기 시작하고 나서 갑자기 목 변경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간소화가 되면 한 번 정도 더 추경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렸습니다.

- 예 산 팀 장 방금 말씀하신 목 변경은 목간 전용이라고 해서 굳이 추경을 통하지 않고도 예산 전용의 절차를 거쳐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 노재웅 평의원 부칙에 다른 규정과의 관계가 있는데 다른 규정에서 종전의 학칙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나요?
- 예 산 팀 장 예. 교무위원회 규정이 그렇습니다.
- 노재웅 평의원 다 지나간 안건이라 그런데, 지금 재정지원과 말고 다른 심의 안건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부칙 조항을 다 안 넣었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히 다른 규정하고도 연관되는 규정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올라온 안건 다른 안건들도 다른 규정과 관계가 있는지 파악을 한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 의 장 권수열 좋은 말씀이신 것 같네요. 다른 규정하고 특별한 관계가 없어서 안 넣으셨겠지만 혹시나 놓친 것이 있을지 모르니까 다시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네요. 우리 학교에서 예산 편성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길다는 얘기는 꽤 오래 전부터 나오기도 했고 나름의 장단점을 갖추고 있어서 지금까지 지켜왔는데 일단 추경부터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 같고 향후에는 본예산 절차나 이런 것의 간소화에 대한 의견을 모아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단순화하게 되면 여러 의견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려해서 절차가 단순화되기가 쉽지는 않은데 재정지원과에서 잘 하실 것으로 믿고 특별하게 이 안건에 대해서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가요? 또 의견이나 질문사항이 없으신 거지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칙 일부개정 학칙(안)을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동의해주시겠습니까?
- 평 의원 일동 예.
- 의 장 권수열 그럼 찬성해 주신 것으로 해서 심의 안건 5호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 5. 기타 의견 수렴 >

- 의 장 권수열 혹시 안건 외에 기타의견이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재 평의원 이번에 학칙 개정을 하면서 학칙을 유심히 봤거든요. 왜냐하면 전국총학생회도 2011년에 학생회칙을 개정하고 나서 지금 22년 만에 학생 학칙 개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개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학칙과 상충되는 부분을 확인해 봤거든요. 또 제가 회칙 개정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확인해 봤는데, 저희가 올해 개정을 하면서 학교 임원장학금 선발기준이 작년까지는 평점 평균이 1.7이었는데 올해부터는 2.0으로 상향이 되었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저희 전국총학생회장이나 지역총학생회 임원으로 나올 수 사람들도 회칙에 2.0으로 평점 평균 개정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학칙에 보니까 제4장 제1절 학생활동 제76조 1항에 보면 재학 중 이수한 성적 평점 평균이 1.7 이상인 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저희 학생회칙하고 상충될 수가 있거든요. 저희 쪽에서 2.0으로 개정하게 되면 출마자께서 학칙에는 1.7인데 왜 학생회칙에는 2.0으로 되어 있느냐,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학칙에도 그렇고 회칙에도 상위 규정을 우선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선거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소송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학교에서 학칙을 개정해 주셨으면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쪽에 저희가 요청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 김선아 평의원** 공식적으로 학생처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호재 평의원** 그 부분은 저희가 학생처 쪽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 김선아 평의원** 지금 딱 명확하네요. 제76조 학생대표의 자격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것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을 해 주시고, 실무선에서도 팀장님이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 교무관리팀장**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호재 평의원** 법적으로 봤을 때는 학생회는 자치기구이기 때문에 저희 회칙을 먼저 적용하는 게 맞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법원으로 가게 되면 단서 조항에 상위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학칙을 먼저 적용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충돌될 수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 6. 마무리 말씀 >

- 의장 권수열**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고,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평 의 원 일동** 예.

< 7. 폐회 선언 >

- 의장 권수열** 2023학년도 제2회 대학평의원회를 마칩니다. 끝.